

<라운드 테이블>

2000 멕시코 대선 의의와 향후 정국전망

다음은 2000년 9월 30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와 한국서어서문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0 스페인-중남미 학 학술대회》의 마지막 분과였던 <라운드테이블: 멕시코 대선 의의와 향후 정국전망>의 토론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 김 달 용 (조선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장)

발제자 및 토론자

1. 호세 빈센테 보르혼(José Vicente Borjon) (주한 멕시코대사관 문화담당관)
- <FOX의 대외정책, 국제적 경제발전>
2. 백종국 (경상대) <멕시코 정치 환경과 정당구조>
3. 임상래 (부산외대) <FOX와 PAN의 선거전략>
4. 김기현 (한국외대) <멕시코의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
- 5.곽재성 (선문대) <FOX 행정부의 출범과 미-멕시코 관계의 시사점>

■ 김달용: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현재 많은 관심을 끌고있는 2000년도 멕시코 대선 의의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2000년 멕시코 대선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9년, 멕시코 혁명 이후 집권한 PRI(제도혁명당)는 1929년부터 현재까지 70여년 동안 행정, 입법, 사법, 상권을 전부 장악하고,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지명하는 특이한 정치 메카니즘

으로 장기 일당 독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유사(parecido)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각 주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세디요(Zedillo)의 민주화 의제, 94년 외환 위기와 대선 후보들의 암살사건 등이 정치적 도화선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치아파스 반군 등 국내적 변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멕시코 선거에서는 PAN(민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점에서 '2000년 멕시코 대선의 의의와 향후 정국전망'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발표자로 현 멕시코 대사관의 호세 보르혼 문화 담당관(Agregado Cultural)을 모시겠습니다.

■호세 보르혼: (요약) 지난 7월 2일 멕시코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거쳐 2000-2006년에 재임할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약속한 비센테 폭스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PRI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 폭스 정권에서 이루어질 멕시코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까지 멕시코의 국제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소개한 다음,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예측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국제정치에서도 언제나 자주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던 나라로서 멕시코 대외정책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폭스 행정부는 과거 멕시코 대외정책의 원칙을 지속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원칙들은 자주, 불간섭, 분쟁

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의 금지, 법적인 평등, 발전을 위한 국가 협력, 국제평화와 안전보장확립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폭스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럽 연합이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NAFTA 회원국간의 사회적 통합을 공고히 한다. 둘째, 20년 혹은 25년 내에 미국, 캐나다와 함께 경제 공동시장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국가적 기관을 설립한다. 셋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통합을 확대한다. 넷째, 유럽 연합과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

멕시코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의 공약으로 미루어 신 정부에서는 대외정책 기본원칙의 지속되는 가운데 멕시코의 발전과 복지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정책이 추진되리라 예상합니다.

■ **김달용**: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주저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개될 미-멕시코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다음 선거에서 뽑힐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가하면,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알 고여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호세 보르혼**: 멕시코의 대미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텍사스의 주지사를 역임했고, 멕시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민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통한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선출된다면 미-멕시코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고여는 현 부대통령으로서 아주 활동적이었고, 인권, 환경, 정보통신 같은 새로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멕시코 국내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간에 미-멕시코

코간의 커다란 관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멕시코의 대외 정책도 근본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달용**: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간략한 주제 발표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를 끝내고 종합적으로 질문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종국**: 저는 멕시코의 정치 환경과 정당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멕시코 정치의 역사적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 멕시코 정치의 현안을 지적한 다음, 마지막으로 올해의 정권교체를 중심으로 정당구조를 간략히 검토하겠습니다.

근대 멕시코의 역사 구조는 1910년 멕시코 혁명으로부터 시작하며, 이를 통해 특징적인 경향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첫째, 정치를 주도하는 지배 연합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지배연합은 이전의 디아스(Díaz)시대부터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2차 혁명기에 부각되었던, 비야(Villa), 사파타(Zapata), 카란사(Carranza)의 3대 세력들이 오브레곤(Obregón) 휘하의 혁명가족을 이루면서 근대 주요 정치 세력이 되었고 이들은 1917년 혁명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카란사가 주도하여 혁명헌법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두 세력의 의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매우 진보적이었던 이 헌법을 중심으로 혁명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PRI가 결성되었습니다.

둘째, 멕시코 역사구조의 특징으로 레이몬 버논(Raymond Vernon) 교수가 명쾌하게 지적해서 유명해진 '멕시코의 딜레마'라는 담론을 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딜레마'란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 요체는 자본주의적 발전이 진행될수록 민주주의 세력의 역할과 권력은 축소된다는 즉, 정치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은 반비례한다는 담론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정치적 전략

으로서 진보와 보수적 성격을 지닌 정파가 교대로 집권하는 타협정치 성격의 지배연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셋째, 1980년 이후의 지배연합의 교체를 살펴보면, 민중주의적 지배 연합에서 신 자유주의적 지배 연합으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는 '멕시코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살펴봄으로서 설명 가능합니다. 딜레마의 좌파적 해결로서 1982년 '은행 국유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60,70년대 딜레마 해결 논쟁 중 하나였던 로페스 뵘르티요(López Portillo)의 은행 국유화는 오히려 위기만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 이후 우파의 해법은 1994년 NAFTA로 결말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 혁명가족 중심의 민중주의적 지배 연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서, 2000년 PAN으로 정권교체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정치의 현안은 첫째, PRI 정치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입니다. 민주화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PRI는 점차 정치개혁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선관위 설치, 비례대표제, 안정조항(35%득표로 다수당 보장)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유와 강제 중심의 정치문화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부의 자유적 정치문화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패문제입니다. 조합주의적 전통이 오랫동안 정치문화로 체질화된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패가 일상화되었고, 부패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쉽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의 발생을 정당구조의 특징으로서 설명해보면, 1강 2하 체제의 멕시코는 1929년부터 2000년까지 PRI는 계속 지배 정당이었고, PAN은 1939년 카르데나스(Cardenas)대통령때부터 존재하였지만, 1961-90 의회선거에서는 13-17%를 득표하였습니다. 1980년 후반, 지배연합이 과거의 진보-보수 정당 교체를 포기하자, 혁명가족 내부의 진보세력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진보세력이 구성한 PRD는 1988년 카르데나스를 중

심으로 정당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선거 투명성이 보장되었다면 88년 선거에서 카르데나스가 이길 수도 있었다는 관측이 존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각 정당들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PRI는 우파경향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기반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였고, 전통적 우파세력 이었던 PAN은 세력을 성장하여 국민의 역사적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지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PRD는 2000년에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멕시코의 정치 역사구조와 현 정당구조사이의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을 통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용**: 멕시코 정당에 대한 역사, 정치적 고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폭스와 PAN의 선거전략'을 임상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 **임상래**: PAN의 선거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차기 폭스정부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저항 또는 장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요소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인들이 야당에게 표를 던진 여러 이유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난과 PRI의 일당독재에 대한 지겨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우려(voto del miedo)와 과거에 실천하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 세디요(Zedillo)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정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PAN이 아닌 폭스의 선거전략과, 그의 사조직(Amigos de Fox)이 중심이 된 선거였다는 면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스의 선거전략의 원칙을 살펴보면,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패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용확대, 외국인 투자촉진, 작은 정부를 통한 시장경제의 확립, 대중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하였고,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 PAN의 보수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멕시코인들의 불안심리를 희석시켰습니다. 폭스는 주지사 때부터 언론에 청바지 차림에 말장화를 신은 남자다운 멕시코(charro) 인으로 등장하였는데 이것도 득표에 적지 않은 득이 되었습니다.

둘째, 차기 정부의 대내적 당면 과제는 경제안정과 과거 청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들로는 마약, 치아파스, 불법 이민 등 고질적 사회문제와 치안, 조직범죄, 유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밑바닥에는 경제 불안정, 계층간 빈부격차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폭스 정부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취임직후 그는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경제팀 수립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폭스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의 당선은 일당통치에 피해 입은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폭스는 암살 같은 과거의 어두운 사건을 조사할 국가투명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폭스정부의 최대 과제는 개혁 열망을 경제, 정치 부작용 없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외에도 폭스 정부는 PRI내부에 존재하는 보수파들의 조직적 반발, PAN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과정에서 부딪힐 어려움, 폭스와 PAN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 지방정부, 연방관료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전에는 PRI와 지방정부, 연방관료는 하나의 조직이었다), PAN, PRI, PRD사이의 새로운 관계 조율의 필요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스의 키는 191cm이며 1902년에 아일랜드에서 조부가 이민 온, 이민 3세대로서 현재 이혼한 상태입니다.

■ **김기현**: 폭스 당선 이후 예상되는 멕시코의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리나스(Salinas)와 세디요의 개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멕시코 개혁의 출발은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 시절 외채 위기 이후의 긴축정책부터였습니다. 1988년 선거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살리나스, 국가 개입주의를 주장하는 델 마소(del Mazo) 두 후보의 결전이었습니다. 살리나스의 개혁은 민영화, 개방, 긴축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텔멕스(Telmex), 아에로메히코(Aeroméxico)를 포함하는 1300여개의 기업을 민영화하였고, 관세를 10%이하로 낮추었으며, 긴축 정책으로 재정 적자를 줄였습니다. 살리나스 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추진 방식으로,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브라질의 카르도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살리나스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사회 정책 프로그램(Pronasol)과 폐소화의 평가절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임기 말의 금융불안을 잠재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디요는 외환위기에 직면하였는데, 그는 미국의 500억불 긴급구제금융을 통해 큰 혼란은 막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94년 10월에 있었던 멕시코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10월 mistake"설과 "12월 mistake"설이 있었는데, 전자는 적절한 시기에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자는 아르헨티나처럼 끝까지 고정환율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10월 mistake"설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세디요는 변동환율제를 도입, 살리나스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면서 살리나스 보다 더 강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권을 잃을 각오로 긴축정책을 유지하여 멕시코의 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면, 멕시코는 폭스를 통해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폭스와 이전의 대통령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그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대통령 중에 기업가 출신은 없었습니다. 46년 아빌라 카마초까지는 군사혁명지도자가, 그후 로페스 보르티요까지는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 법대 출신 민간정치인이었으며, 데 라 마드리드에서 살리나스까지는 미국 유명 대학 출신의 경제관료들 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외교, 경제, 사회정책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멕시코의 외교정책의 근본은 비 간섭주의였습니다. 그러나 폭스에 와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정권 유지 차원의 방어적 민족주의인 비 간섭주의를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폭스가 쿠바의 민주화 요구 등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에 대한 개입으로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품과 자유로이 이동하는 나프타를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까지 자유롭게 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심화하여 멕시코의 복지 향상, 노동자 임금의 증대를 꾀하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이민입니다. 하지만 이 불법 이민은 미국, 멕시코간 임금 차가 5:1정도면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10년 간 240억 달러 투자하면 현재 8:1의 임금 차가 5:1로 조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 석유등의 민영화를 포함하는 경제정책 분야입니다. 강력한 노조, 민족적 감정 때문에 살리나스 때에도 민영화시키지 못했던 분야에서 폭스는 우선 전기부터 민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을 수정해야 가능한 데, 이제는 야당이 될 제도혁명당(PRI)이 그것을 허용할지 아닌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그가 빈곤 해소방법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로서 교육 투자를 2배로 증가하여 멕시코인들의 생산력을 향상시켜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의지는 재원 마련이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 개혁을

강행하여야 하는데, 현 멕시코 세수 비중은 GDP의 17%(미국30%, 폴란드41%, 한국21%)입니다. 6%정도 더 끌어내어 23%까지 끌어올리려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비공식 부문을 양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의 확대 등 이를 위한 유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가능성은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가가치세 (IVA) 문제입니다. 세디요가 10%에서 15%로 올렸지만, 아직 음식, 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보조가 있습니다. 폭스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국가 보조가 가지는 빈곤정책의 비효율성을 고려해 그를 폐지하고자 하지만 빈곤층의 저항이 얼마만큼 클지 역시 살펴 보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파스, 낙태 등 사회정책 분야입니다. 치아파스의 문제는 산안드레스(San Andrés)협약만 들어주면 사파티스타(Zapatista)는 모든 것에 동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회의에서 미 통과 상태인 이 문제를 통과시키겠다는 폭스의 의지 또한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점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멕시코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달용**: 날카로운 분석으로 , 좋은 시사점을 제기하셨습니다.

■ **곽재성**: “PAN 행정부의 출범과 미-멕시코 관계의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멕시코 대사관 문화담당관께서 지금까지 멕시코의 각가지 대외정책 원칙과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폭스는 취임 직후, 국경을 허물자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노동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멕시코 실업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미국이 받아들일게되면 미국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으로 미국을 방문한 폭스는 망신만 당했습니다. 폭스는 근본적으로 노동, 사회자본,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주의자로

서, 자유로운 변화를 원하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멕시코 발전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현 미국내의 논의는 멕시코 인에게 주는 비자의 쿼터를 늘일 것인가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폭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거대 자본과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NAFTA체제로는 멕시코의 발전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방문 시 돈과 노동을 바꾸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불간섭주의나 논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 사실상의 수사학에 불과했던 원칙을 강조하던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 대외 정책의 수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대외 정책의 핵심은 자주, 혁명, 민족주의 세 가지입니다. 혁명의 역사를 딛고 일어섰던 PRI의 71년의 역사가 이러한 핵심요소들의 절대성을 강조한 탓에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기능했으며 이들은 사실과는 다르게 과대평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멕시코는 자주, 혁명, 민족주의의 수사학을 통해 겉으로 카스트로의 쿠바, 아옌데의 칠레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동시에 미국과는 언더테이블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멕시코의 몇몇 대통령이 실제로 CIA와 거래 한 것이 얼마 전 미국 비밀문서에서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대외 정책은 허구적인 혁명의 수사학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폭스는 이런 수사학을 폐기시킬 것입니다. 실용주의(Realpolitik)를 내세우면서 NAFTA의 확대와 심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감소하며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 **김달용**: 지금까지 70여 년간 일당 독재이후의 교체,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대외정책에서 미국을 의식한 정책이 바뀔 것인가, 부패문제와 이로 인한 격심한 빈부격차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취할 폭스의 행동 분석이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점을 대답하실 분을 지적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진지한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 **질문:** 폭스는 위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껏 멕시코 대통령 바뀔 때마다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만일 평가절하가 또 이루어질 경우 순항을 얘기 할 수 없습니다.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가절하가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세디요는 정권 재창출의 부담이 없어서 긴축정책의 유지가 가능하였고, 또 지금은 유가 인상, 미국 경기 호황 등 아주 좋은 조건에서 멕시코의 평가절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평가절하가 단행될 가능성의 경우입니다. 현재 멕시코가 안고있는 경상수지 200억불 적자의 문제는 분명 평가절하의 요인입니다. 결국 세계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데 유가 인하 전에 세계개혁을 순조롭게 이루게 되면, 재정흑자로 돌아서 평가절하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임상래:** 이제 정권은 바뀌었고 앞으로의 관심은 멕시코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사회내의 계층간 관계의 면에서 보면 이전의 멕시코 정치에서는 PRI로 대표되는 집권블록이 여러 사회부문(social sector)들을 꼭대기에서 조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PAN이 줄의 서열을 어느 정도 바꿀 것인지에 따라, 멕시코 사회내부의 혼란 혹은 안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김기현 박사님께 질문입니다. 멕시코가 최근 우리와 상황이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민영화, 재정긴축, 세수 확대 등. 한국은 최근 내년엔 251만원으로 일인당 세금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한국이 긴축 재정을 하면 내년 이전에 국제 신용등급 상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박사님에 의하면 멕시코는 세디요부터 강행되어온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앞으로 긴축 재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는 얼마기간동안 긴축재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현**: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이제껏 멕시코의 상황을 보면 긴축, 평가절하, 수출 증가, 경상수지 흑자, 안정, 긴축, 외국자본 유입, 평가절상,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경상수지 적자반전, 외환위기를 되풀이 해왔습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멕시코가 2년 반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한 것에 비해, 한국은 현재 외환위기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아직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볼 때 한국에서의 제 2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의 문제는 이제 그 효과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세계화의 시점에서 긴축을 통한 건전 재정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본을 국내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적 기회와 아픔이 있습니다.

■ **김달용**: 아시아와 중남미 경제위기를 비교해 볼 때, 중남미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잘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남미는 위기가 많아서 극복하는 자생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풍부한 자원과 미국과의 상호 의존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 **백종국**: 이제껏 논의는 국가 내부, 재정수지에 중점을 둔 관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 구조적인 요인에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신 자유주의자들은 위험한 생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의 시작은 국제시장에 축적된 금융의 양에 따라 다르고, 이들은 이윤 가능한 자본이어야 합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연금축적, 자본축적, 변동환율제, 헤치 펀드에서 나오는 2-3조억 달러로 각 국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잘 조절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미국의 이론을 해석 없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미시 경제보다는 거시 국제경제 차원에서 국가가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질문:**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가 87년 발표한 작품 중, PAN의 출마자가 당선하여, 멕시코가 이전보다 발전한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 백 교수님께서 PAN이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를로스가 어떻게 15년 전에 알았을까요? 문학이 사회를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엔테스는 멕시코 지식인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질문은 현 멕시코 지식인이 보는 PAN 정당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백종국:** 이번 선거에서는 산안헬그룹(Groupo de San Angel: 좌파)이 폭스를 지원했습니다. 좌파가 우파 후보를 지원한 현상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임상래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상래:** 어떤 색깔을 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식인 그룹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로 대신하여 알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은 폭스를 잠정적으로 콘세르바도르 포플라르(Conservador Popular:대중적 성향을 가진 보수주의자)라고 부릅니다.

■ **김달용:**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토론과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주한 외교사절들을 자주 불러서 현안문제, 공통관심사를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자주 주선할 것입니다.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와 한국서어서문학회가 공동개최한 오늘의 학술회는 공생의 길을 제시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이경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석사과정)

『라틴아메리카연구』 기고요령

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는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전역과 이베리아반도 지역에 관한 지역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2. 본 학회는 학회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 주실 원고는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을 기본으로 합니다.
3. 게재 신청을 하실 논문의 연구 분야나 제목은 제한이 없으나 게재 여부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이 논문을 보내실 때는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컴퓨터용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셔서 원고1부와 디스켓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논문의 영문 제목과 영문 성명, 그리고 300자 내외의 한글 논문초록을 첨부하십시오.
5. 학회지 기고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고 송달의 경우 절봉투에 반드시 '학회지 원고 게재 신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접수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회 우편번호 : 449-701

이내영 교수 연구실

E-mail : nylee@khu.ac.kr

전화 : 031-201-2360, 017-340-1221

〈원고작성 요령〉

1. 원고는 적당한 줄간격을 두어 읽기 쉬워야 하며 상하 좌우에 적당한 여백을 남겨서 검토하거나 편집자가 노트를 하기 쉽도록 한다.

2. 원고는 다음 6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1) 원고의 첫장은 제목 장으로서 논문의 제목과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전화와 팩스 포함)을 명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표기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2) 별도의 장에 본문이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 요약문,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 요약문(제목, 연구자 이름, 핵심단어 등을 포함, A4용지에 더블 스페이스로 한 장)을 작성한다.

(3) 본문은 새로운 장에 제목부터 시작한다.

1) 본문이 국문인 경우 한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기타의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하여 표기한다. 외국어의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깝게 한글로 표시하고, 첫 번에 한하여 원어를 괄호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는 이 원칙에서 예외로 하되 해당 논문에서의 표기는 저자 나름대로 통일한다.

예) Cuba : 쿠바(×), 쿠바(○).

2) 본문의 장, 절, 제목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 번호는 'Ⅲ,3, (3),3, XXX,다'의 예를 따른다.

3) 본문에 있는 내용에 관련된 참고문헌은 '약식주'로 처리하며 본문내에 저자와 출판 연도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페이지도 포함시킨다.

(예)

- ①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있는 경우 : 민만식(1895), 니들러(Needler, 1894)
- ②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없는 경우 : (민만식,1895), (Neddler, 1984)
- ③ 페이지 부여는 : (Needler, 1984 : 71~75)
- ④ 4명 이상이 쓴 공저는 : (민만식 외, 1990), (Lomnitz et. al., 1993).
단 본문 뒤의 참고문헌 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함.
- ⑤ 참고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 (O'Donnell, 1992 : Casanova, 1990 ; Smith, 1993)
- ⑥ 간행 예정인 원고는 '미간'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할 것. 미간된 논문은 집필 연도를 기록할 것. 연도가 없는 것은 그 자리에 'n.d'를 쓸 것 : 강석영(미간), Fuentes(forthcoming), Wolf(n.d.)
- ⑦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중남미 연구소, 1994)

4) 각주는 추가로 참고할 만한 논문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혹은 관련된 논의를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문의 아래쪽에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베껴 제시한다(일반적으로 긴 각주는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며 출판 비용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능하면 각주 대신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저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삽입시키거나 부로(appendix)를 사용할 수 있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1>' 또는 '[그림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부여한다. 표나 그림을 설명하는 '주'는 표나 그림 바로 밑에 '주 :1)'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 후에 지시하며 아스테리스크(asterisk : *)는 통계적 유의 수준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출처는 '자료:'라고 쓴 다음에 제시하며 그 형식은 참고문헌의 예를 따른다. 그림(삽화,사진포함)의 경우 직접 사식이 가능할 정도로 선명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4)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이어서 <참고문헌>이라고 제목을 쓰고, 한 칸 띄운 뒤에 제시한다. 본문이나 각주에 제시된 모든 참고문헌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2) 순서는 저자명에 따라 국문, 영문(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어 등 포함), 기타(일본어, 중국어 등)의 순서로 제시하되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과 기타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

민만식·권문술,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서울 : 탐구당, 1895
강석영, 「과테말라의 폭력과 사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논총』
제5호

Hayes, Margaret D., *Latin America and the U. S. National Interest : A Basis for U. S. Foreign Policy*, Boulder, CA. : Westview Press, 1984.

McCoy, Jennifer L., "Nicaragua in Transition," *Current History*, 90(554), March, 1984.

Needler, Martin C., "Contemporary Mexico." in Jan Knippers Black(ed.), *Latin America : Its Problems and Promise*, Boulder, CA. : Westview Press, 1984.